서남대가 폐교되는 시점인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보건의료대 남원 유치와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남원 존치를"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공공보건의료대 남원 유치 등 주장

서남대 폐쇄명령 이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남대가 폐교되는 시점인 지난 2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추진위를 중심으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모색 국회 토론회' 참석 이후 대학유치추진원회의 뜻을 모아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과 서남대 폐교를 앞두고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사학법 제35조, 비리사학에 대한 국고환수 규정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국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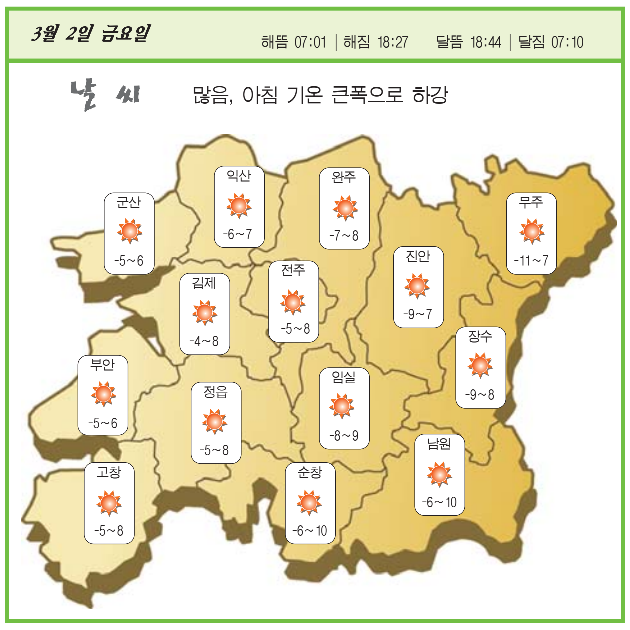
1994년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의료 낙후지역 서비스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교육부가 학습권 보장이라는 미명아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를 고통속에 몰아 넣고, 지역대학간 갈등을 조장한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가 서남대 폐쇄명령을 정령 막지 못했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공공보건의료대가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남대 의대정원 문제로 전국 대학 및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빠른 시일내 봉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최근 밀양병원 의료취약 사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 차원의 합리적 대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주길 촉구하기도 했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기 마련이라며, 당초 서남대 설립취지에 맞게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수도권이 아닌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 설립에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전북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과 보건계열 학과 정원이 반드시 존치해야 함을 천명하고 나섰다.

더불어 추진위의 당연한 요구가 조속히 실행되어 전북도와 남원이 상생발전하고 지역 교육수준의 향상과 의료복지 여건이 개선되는 그 날까지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함께 할 것임을 선언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대·군산대 신입생 입학식 거행

"신입생 여러분이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성장하면서 사고의 시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2018학년도 입학식이 2월 28일 오후 2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이남호 총장과 처·실·국장·대학(원)장 및 대학 관계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입학식에서 이남호 총장은 2018학년도 입학대상자 5,355명에 대한 입학허가를 했다.

정영태 학생(기계설계공학부)과 벨기에 유학생인 클로에 학생(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이 선서를 했다.

특히 이번 입학식에서는 UCC 공모를 통해 이뤄진 축하 동영상이 상영됐고, 본부 보직자들은 입학생들에게 축하 장미꽃을 전달하는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마당이 됐다.

군산대학교도 같은 날 대학 체육관에서 '2018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고, 2,026명에게 입학을 허가했다.

군산대학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 현황은 학부과정 1,773명, 석사과정 187명, 박사 66명 등 총 2,026명이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선언, 신입생 선서, 장학증서 수여, 식사, 보직자 소개,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서현덕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했다.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차현진이 단과대학 수석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행정경제학부 김승미, 사회복지학과 서혜빈, 수학과 전은서, 간호학과 서현덕·송강산,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고범수 등은 수능성적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김민근 기자

전주 첫 마중길 사진촬영 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에서는 2일 오후 5시 30분 ~ 오후 8시까지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첫 마중길 빛 축제 사진공모전' 일환으로 사진촬영 대회를 한다.

사진공모전은 첫 마중길 자체발광 및 축제현장(2017.12.22.~2018.3.10.)에서 가족들과 친구,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그동안 진행됐던 다양한 이벤트 사진들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촬영대회에서는 다양한 촬영 소재를 제공하고자 관람객들과 함께 하는 전통놀이체험(제기차기, 오자미 던지기, 활쏘기 등)과 버스킹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이번 사진촬영 대회에는 사진을 좋아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촬영 대회 당일 사진 또는 첫 마중길 자체발광 빛 축제 현장에서 찍은 추억의 사진을 3월 15일까지 1인당 4점 이내로 파일 접수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전교조 전임 허용·해직교사 복직시켜야"

서거석 도교육감 예비후보, "헌법에서 부여한 단결권 등 부정할 수 없어"

전북대 제15대, 16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사진)가 "전북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 권리와 적폐 청산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전교조 전임 허용과 해직교사 복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는 전 정부 체제에서 전교조 시련의 시작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인 적폐 청산 과제 조사 대상으로 꼽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전교조의 노조 전임은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승인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1,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소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서 예비후보는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규정한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뿐 원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단결권 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노조 전임은 법률이 아니라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인정된 것이고, 교원노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교조 노조 전임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헌소지 의견을 표명한 것과 함께, 노동부에도 법외노조 철회를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자체 교육경비, 올해 18.2%P 증가

올해 전북도내 지자체의 교육경비가 지난해 705억원에서 18.2%가 증가한 8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지역 고교 급식비의 지자체 지원 확대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지난해 705억원에서 8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교급식 지원액이 전년대비 20% 늘어난 595억원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재 양성 47억원(21.3% 증가) ▲학생장학금 11억원(18.2% 증가)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전년에 비해 7억원이 줄어든 49억원, 학력신장 분야는 전년도와 같은 79억원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학생 수영교실 개방과 이용료 감면, 국립 태권도원을 학교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키로 했다. 또 무상급식 단가를 2018년에 교육청 100원, 지자체 100원씩 인상하고 2020년과 2022년에도 200원씩 인상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